

남녀 대학생의 캠퍼스웨어 이미지 평가와 선호도에 관한 연구

황 미 선* · 이 명 희⁺

성신여자대학교 의류학과* · 성신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The Image Evaluation and Preference of the Campus Wear of College Males and Females

Mi-Sun Hwang* · Myoung-Hee Lee⁺

Dept. of Clothing & Textiles, Sungshin Women's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Sungshin Women's University⁺

(2004. 9. 15 투고)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differences of image evaluation according to perceiver's gender and clothing style, and to investigate the clothing preference according to the style of campus wear. Subjects were 340 college males and females in Seoul.

The image of campus wear was divided into four dimensions: neatness, polishing, potency, and activity. Gender had significant influences on the perception of neatness, polishing, and potency. Males perceived the campus wear to be neater, more polished and potent than female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evaluating neatness, polishing, potency, and activity according to campus wear style. The sweatshirt was estimated low in polishing and potency but high in activity. The T-shirt · short pants was estimated low in polishing and neatness but high in activity. The jumper was rated high in activity, and pants suit high in neatness, polishing, and potency, but it was estimated low in activity. The skirt suit was rated high in neatness and low in activity. The knit cardigan was perceived as polished image. College students preferred knit cardigan, one-piece dress, jumper, and pants suit, however, T-shirt · short pants was comparatively less preferred. Males estimated the knit cardigan to be more favorable than females. Characteristics of clothing image which influenced on preference of campus wear were different between males and females.

Key words: campus wear(캠퍼스웨어), image evaluation(이미지 평가), clothing style(의복스타일), clothing preference(의복 선호도)

I. 서론

현대사회에서 의복은 자신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

단이 되는 무언의 언어로서 착용자를 지각하는데 있어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의복은 착용자의 나이나 성별, 역할, 직업과 같은 개인의 외면적 특질뿐만 아니라, 가치관, 사회적 신분, 성격 등과 같은 추상

적인 것까지도 전달해 주는 시각적 혹은 비언어적 상징으로 사용되어 타인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의복은 착용자의 특성이나 옷을 입는 목적, 장소, 분위기 등에 적당한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견지에서 의복이 대인지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중요하다고 하겠다.

대학생은 연령구분에서 청년후기에 속하며, 이 시기는 자기의 신체나 외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의복에 대한 흥미가 높아진다. 또한 청년기에는 동료집단의 구성원들과 비슷하게 보일 때 소속감을 느끼고 사회적인 승인을 얻고 자신감을 강화시키게 되므로¹⁾, 같은 연령대의 친구들이 많이 입는 옷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으며 자기가 입은 옷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중요하게 여기는 편이다.²⁾

대학생들의 캠퍼스웨어(campus wear)는 대학 내에서의 특유한 상징적 역할을 수행하고, 시대변천에 따라 변화를 계속해 왔으므로³⁾ 캠퍼스웨어의 다양한 스타일에 따른 의복이미지 평가 및 선호도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캠퍼스웨어에 관한 선행연구는 주로 여성복 이미지를 평가한 연구⁴⁾와 의복 선호도 연구^{5),6)}가 다소 이루어졌으나, 남자와 여자의 캠퍼스웨어의 이미지 평가를 함께 조사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개방화되는 사회문화적 체계와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남성들도 패션과 의류상품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⁷⁾ 유행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으므로⁸⁾ 남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양성간의 캠퍼스웨어의 이미지 평가와 선호도를 비교하는 연구는 의의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캠퍼스웨어 스타일에 대한 이미지 평가의 차원을 조사하며, 지각자의 성별과 의복스타일에 따른 캠퍼스웨어의 이미지 평가의 차이를 규명하며, 캠퍼스웨어 스타일에 따른 대학생들의 선호도를 파악하고,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이미지 특성을 조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관찰자 입장에서 동료집단의 의복이미지를 이해하고, 타인에게 지각되는 자신의 이미지를 유추해 봄으로써 적절한 이미지 관리와 선호하는 이미지 연출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캠퍼스웨어

캠퍼스웨어란 칼리지웨어, 스쿨웨어 등을 포함한 것으로 넓은 뜻에서 학생의 복장을 말하며,⁹⁾ 단풍

을 코디네이트한 캐주얼 웨어의 일종이다.¹⁰⁾

Kefgen과 Tochie-Specht¹¹⁾는 일반적으로 인간의 일생 중에서 의복에 가장 흥미를 갖는 시기는 10대 말이나 20대 초로서 이 시기의 세대들은 목적달성과 주위의 인정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의복이 주는 영향력을 매우 중요시한다고 하였다.

김예숙 등¹²⁾의 연구에서는 남자 대학생이 좋아하는 여대생의 캠퍼스웨어는 티셔츠, straight skirt, full pleats skirt, semi-fitted pants, normal waist one-piece dress 등이며, 여대생이 좋아하는 남자 대학생의 캠퍼스웨어는 칼라가 달린 티셔츠, 남방셔츠, semi-fitted pants라고 하였다. 또한 남학생은 여학생의 캠퍼스웨어로서 스커트와 바지를 비슷하게 선호하였다. 박성은¹³⁾의 연구에서는 캠퍼스웨어로 버튼다운 셔츠·청바지, 폴로셔츠·반바지, 티셔츠·재킷·청바지로 구성된 의복을 선호한다고 하였다. 학교 상황에 적절한 의복을 착용한 여대생은 단정하고 깨끗하며 지적이고 성실함과 동시에 활동적이며 실천적인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는 반면, 소극적이고 소심하며, 보수적인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영재¹⁴⁾는 캠퍼스 내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재 착용하고 있는 상·하의 패션아이템을 조사한 결과, 남자 대학생의 하의는 면바지, 청바지, 힙합바지, 체크바지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여자 대학생은 청바지, 치마, 정장바지, 힙합바지의 순서로 나타났다. 상의는 남자 대학생의 경우, 니트 및 니트가디건, 남방 및 셔츠, 티셔츠, 점퍼, 조끼, 재킷의 순서로 나타났다. 여자 대학생은 니트 및 니트가디건, 남방 및 셔츠, 티셔츠까지는 남자 대학생과 동일한 결과를 나타냈으나 그 다음으로는 스웨터, 정장, 재킷, 블라우스의 순으로 착용되었다. 남녀 대학생의 패션 코디네이션 스타일은 전체적으로 캐주얼이 강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자 대학생들은 페미닌, 매니시한 감각의 정장스타일도 나타나 남자 대학생에 비해 다양한 스타일이 착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2. 의복과 인상형성

타인을 평가하는 사회적 지각의 연구는 지각자 변인, 지각대상자 변인, 상황변인으로 나누어진다.¹⁵⁾ 지각자 변인은 지각자의 신체적, 심리적 특성, 인지적 구조 등을 포함하며, 대인지각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지각대상자 변인은 의복의 유형, 형태, 색상, 의복착용자의 특성 등이 인상에 미치는 영향

에 관한 것을 포함하며, 상황적 변인이란 지각이 일어나는 사회적 상황 또는 맥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의복의 상징성에 의해 전달되는 특정한 의미는 그것이 지각되는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Sweat과 Zentner¹⁶⁾는 여성 스타일에 관한 연구에서 드라마틱한 스타일의 착용자는 비인습적이고, 로맨틱한 스타일과 내추럴한 스타일의 착용자는 사회성이 높으며, 클래식한 스타일의 착용자는 인습적이며 격식을 차리는 사람으로 평가된다고 하였다. Bulter와 Rossel¹⁷⁾은 여교사가 착용한 의복유형 (suit, dress, pants, jean)에 따른 고등학생들의 평가를 연구하였는데, 진(jean)을 착용한 교사는 재미있고 접근이 쉬운 것으로 지각되었으나 지적 능력은 낮고 선생님다운 외모가 아닌 것으로 평가되었다. 수트를 착용한 교사는 접근이 어렵고 재미가 없으며 권위있는 교사의 외모로 지각되었다.

Bell¹⁸⁾은 남성복 스타일에 따른 성격특성 지각에 관하여 연구하였는데, 대담한 스타일과 캐주얼 스타일은 매력성과 지적인 면이 낮게 평가되었다. 보수적 스타일은 매력적이며 지적이었으나 일반적인 차림이 아닌 것으로 지각되었으며, 캐주얼 유형보다 더 사회적으로 평가되었다.

방희선, 고애란¹⁹⁾의 연구에서 남녀 청소년에게 세련된 인상을 주는 스타일은 현재 유행하고 있거나 많이 입혀지는 의복스타일이었고, 성실한 인상에는 무난하고 평범한 의복스타일이 가장 긍정적인 효과를 주었다. 학업우수성에서는 남학생의 경우 평범한 의복스타일이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낸 반면, 여학생의 경우는 무난하고 평범한 스타일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류숙희, 김보연²⁰⁾의 연구에서는 클래식한 스타일은 성숙하고 형식적이며 조심성 있는 이미지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캐주얼한 스타일은 매우 활동적이나 매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엘레강스한 스타일은 매력적이며 성숙해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드라마틱한 스타일은 매력성과 성숙성이 높고, 활동성을 지닌 이미지로 나타났다. 로맨틱한 스타일은 매력적이고 어리게 보이며, 매니쉬한 스타일은 대담하고 활동적이지만 매력성이 낮은 것으로 지각되었다.

3. 성별에 따른 의복이미지 평가 및 선호도

대인지각에 영향을 주는 지각자 변인에는 지각자의 신체적 특성, 심리적 특성, 인지적 구조 등이 포함된다.²¹⁾ 성별은 지각자의 특성 중 중요한 변인으로, 성에는 오직 두 개의 범주만이 존재하므로 남성

과 여성으로서 기대되는 의미는 과도하게 단순화되어 나타나는 수가 있으며 동성과 이성의 의복인지는 불일치의 요소를 지니고 있다.²²⁾

한편, 의복의 구성요소에 따라 의복이미지가 달리 표현될 수 있으며 사회·문화적 요인이나 개인적 요인에 따라 선호하는 의복이미지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²³⁾

Delong, Salusso-Deonier와 Larntz²⁴⁾는 여성의 사교복과 사무복의 지각에 관한 연구에서, 남자는 여자보다 모든 의복을 썩시하고 남의 눈에 띄며 형식에 맞고 우아한 것으로 보았다. 평가적 차원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사무복을 낮게 평가하였고 사교복은 높게 평가하였다.

안유인²⁵⁾의 연구에서는 의복의 성적 이미지와 상황적 이미지의 인지에 있어서 남녀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어, 남성은 여성보다 같은 의복을 보고 더 여성스럽게 느끼는 경향이 있었으며, 이경희²⁶⁾의 연구에서도 동일한 의복형태에 대하여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욱 여성스럽게 느낀다고 하였다.

한국인과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이명희²⁷⁾의 연구에서는 미국인이 한국인보다 화려한 이미지를 더 선호하였으며, 미국인의 여성이 남성보다 화려한 이미지를 더 선호하였다. 한국인은 미국인보다 캐주얼한 이미지를 선호하였으며, 한국인의 남성이 여성보다 여성적인 이미지를 더 선호하였다. 또한, 한국 남성은 사치한 이미지를 가장 싫어하면서 밝은 이미지를 좋아하였고, 한국 여성은 현대적인 이미지를 좋아하는 편이었다. 미국 남성은 성적인 이미지를 좋아하였고, 미국 여성은 유행에 앞선 이미지를 선호하였다.

이미연, 이명희²⁸⁾의 웨딩드레스에 관한 연구에서 남자는 실루엣 및 네크라인을 지각하는데 있어서 여자보다 동일한 지각대상자를 더 매력적이며 귀엽게 판단하였으나 여자는 남자보다 동일한 지각대상자를 더 단정하게 평가하였다. 류지은²⁹⁾의 연구에서는 맞선 상황에서 남녀 모두 엘레강스-클래식한 의복을 선호하였으며, 미팅 상황에서는 남성이 썩시한 의복을 가장 선호한 반면, 여성은 매니쉬한 의복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경숙³⁰⁾의 연구에서는 엘레강스한 스타일은 남자보다 여자가 더 부드러운 이미지로 평가하였고, 귀여운 스타일은 여자가 남자보다 더 경쾌하며, 젊어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남자는 여자보다 로맨틱한 스타일을 더 선호하였으며, 썩시한 스타일을 보기 좋다고 평가하였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연구방법은 질문지와 자극물을 사용한 조사연구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2개의 독립변인에 의한 2×12 (지각자의 성별×의복스타일)의 요인설계를 사용하였다. 측정도구는 캠퍼스웨어 자극물과 이에 대한 지각자의 반응을 측정하는 질문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1. 측정도구

1) 자극물 제작

자극물 제작을 위하여 선행연구^{31), 32)}를 참고하여 남녀 각각 6개씩 총 12개의 캠퍼스웨어 스타일을 선정하였다. 남자 의복의 기본 구성은 스웨트셔츠, 티셔츠·반바지, 남방셔츠·티셔츠, 남방셔츠·반바지, 점퍼, 스웨터의 6가지를 선택하였으며, 여자 의복은 셔츠·스커트, 원피스, 바지수트, 7부바지, 스커트수트, 니트가디건³³⁾의 6가지로 정하여 남녀 총 12가지 스타일로 구성하였다.

의복스타일 선택을 위하여 20대를 타깃으로 하는 의류 브랜드의 인터넷 사이트^{33), 34), 35), 36), 37), 38), 39)}에서 2002년 가을에서 2003년 여름 시즌까지의 상품 코디네이션 중, 캠퍼스웨어 스타일에 적합한 모습을 한 스타일 당 각각 4개씩 수집하였다. 수집된 그림들을 포토샵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조사에 적합하도록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자극물로 사용하였다. 의복스타일의 이미지 측정 시 의복 색의 영향을 받는 것을 배제하기 위하여 그림을 흑백으로 만들었으며 배경은 흰색으로 하였다. 자극물은 목 이하부터 발목까지 제시하였으며, 크기는 5×12cm였다. 완성된 자극물은 의류학을 전공하는 여대생 30명을 대상으로 하여 캠퍼스웨어로 가장 많이 착용되는 스타일의 순위를 매기도록 한 후, 높은 점수를 받은 그림을 본 조사에 사용하였다. 선택된 자극물은 S1~S12의 기호를 부여하였으며, S1~S6은 남성복, S7~S12는 여성복이다(그림 4 참조).

S1은 스웨트셔츠에 바지, S2는 칼라 달린 셔츠에 반바지를 착용하였고, S3은 티셔츠·남방셔츠에 긴 바지, S4는 남방셔츠에 반바지를 입은 그림이다. S5는 셔츠, 스웨터 위에 점퍼를 입고 바지를 착용하였고, S6은 셔츠 위에 스웨터를 입고 바지를 착용한 모습이다. S7은 티셔츠에 스커트, S8은 셔츠원피스, S9는 셔츠 위에 바지 수트를 착용한 것이다. S10은 남방셔츠에 7부바지를 착용하였고, S11은 스커트 수트를, S12는 니트가디건에 스커트를 착용한 것이다.

2) 의미미분척도 형용사 쌍 선정

이미지 지각에 사용된 의미미분척도는 자유기술식 응답법과 선행연구^{40), 41), 42), 43)}에서 사용한 용어를 참고하여 택하였다. 자유기술식 응답은 여대생 3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1명의 피험자가 3개의 자극물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피험자에게 제시된 자극물을 보고 연상되는 형용사를 자유응답식으로 서술하도록 하였다. 최종 선택된 문항은 총 24개로 7점 양극 형용사 쌍으로 이루어졌다.

2. 자료수집 및 자료분석

지각자로서의 피험자는 서울지역 남녀대학생 340명이었으며, 자료수집기간은 2003년 9월이었다. 질문지는 12개 자극물의 의복스타일을 3개씩 조합하여 모두 4조의 유형이 되게 하였으며, 1명의 피험자가 3개의 자극물에 반응하도록 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전산처리하였다. 통계분석방법은 요인분석, Cronbach's α 신뢰도 계수산출, 일원변량분석, 이원변량분석, Duncan의 다중범위검증, 적률상관관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Ⅳ. 결과 및 논의

1. 의복이미지 평가의 요인분석

의복이미지를 평가하는 의미미분척도 형용사 24 문항에 대하여 주성분분석과 Varimax 회전법에 의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5개 요인이 선택되었고, 1차 요인분석에서 문항내용이 적합하지 않은 2개의 문항을 제외하고 2차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4개의 요인이 선택되었으며 각 요인에 대한 문항은 <표 1>과 같다.

요인 1은 단정한-단정하지 못한, 깔끔한-깔끔하지 못한 등이 포함되어 단정성 요인이라 명명하였다. 요인 2는 매력있는-매력없는, 세련된-촌스러운 등이 포함되어 세련성 요인이라고 하였고, 요인 3은 적극적인-소극적인, 자신감있는-자신감없는, 능력있는-능력없는 등이 포함되어 능력 요인이라고 하였다. 요인 4는 캐주얼한-포멀한, 활동적인-비활동적인 등이 포함되어 활동성 요인이라고 하였다. 모든 문항의 요인부하량은 .43 이상이고 요인 4까지의 누적변량은 62.67%였다. 각 요인의 Cronbach's α 신뢰도 계수는 단정성, 세련성, 능력, 활동성이 각각 .82, .84, .76, .76으로서 신뢰도가 만족할 만 하였다.

본 연구에서 단정성 요인의 도출은 이명희⁴⁴⁾의 연구와 일치하였고, 능력, 활동성 요인의 도출은 이주현, 조공호⁴⁵⁾, 류숙희, 김보연⁴⁶⁾의 연구와 일치하였으며, 세련성 요인의 도출은 방희선, 고애란⁴⁷⁾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상에서 활동성 요인의 '여성적인-남성적인' 문항을 제외한 각 요인의 문항은 점수가 높을수록 앞쪽에 위치한 형용사의 특성과 그 요인의 성향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하여 더욱 확실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 더 주관적으로 뚜렷한 평가를 한다는 유경숙⁴⁹⁾의 견해와 같은 맥락이라고 본다.

의복스타일은 단정성, 세련성, 능력, 활동성 요인 모두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의복스타일의 평균치를 Duncan의 사후검정에 의해 비교하여 보면 단정성 요인은 7개 집단으로 세분되어, 여성의 바지수트와 스커트수트가 가장 단정하게 지각되었다. 남성부 중에는 스웨터가 단정성이 비교적 높은 편이

〈표 1〉 의복이미지 평가의 요인분석

요인1. 단정성		요인부하량	요인3. 능력		요인부하량
단정한	- 단정하지 못한	.83	적극적인	- 소극적인	.85
깔끔한	- 깔끔하지 못한	.81	자신감있는	- 자신감없는	.78
성실한	- 성실하지 못한	.79	사교적인	- 비사교적인	.57
지성적인	- 지성적이지 못한	.69	능력있는	- 능력없는	.54
이성적인	- 감성적인	.55	대담한	- 무난한	.45
모범생다운	- 모범생답지 않은	.52			
품위있는	- 품위없는	.51			
변량 = 18.32%		누적변량 = 18.32%	변량 = 14.57%		누적변량 = 48.45%
고유치 = 4.03		a신뢰도 = .82	고유치 = 3.21		a신뢰도 = .76
요인2. 세련성		요인부하량	요인4. 활동성		요인부하량
매력있는	- 매력없는	.69	캐주얼한	- 포멀한	.82
세련된	- 촌스러운	.68	활동적인	- 비활동적인	.80
내가 좋아하는	- 내가 싫어하는	.67	자연스러운	- 어색한	.80
눈에 띄는	- 눈에 띄지 않는	.67	발랄한	- 발랄하지 않은	.60
개성적인	- 평범한	.57	여성적인	- 남성적인	-.43
변량 = 15.56%		누적변량 = 33.88%	변량 = 14.22%		누적변량 = 62.67%
고유치 = 3.42		a신뢰도 = .84	고유치 = 3.13		a신뢰도 = .76

2. 지각자의 성별 및 의복스타일에 따른 의복 이미지 평가

지각자의 성별 및 의복스타일에 따른 의복이미지 평가의 차이를 조사하기 위하여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서 주효과를 보면, 지각자의 성별은 단정성, 세련성, 능력 요인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으며, 활동성 요인은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평균치를 보면 남자가 단정성, 세련성, 능력에 대한 평균이 모두 여자보다 높아, 같은 자극물에 대해서 남자가 여자보다 더 단정하고 세련되며 능력 있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여자들이 남자보다 의복이나 유행에 대한 관심이 더 높기 때문에⁴⁸⁾ 의복 기대 수준이 높아서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며, 캠퍼스 내에서 일반적으로 착용하는 일상복으로 구성된 자극물에 대하여 여자들이 남자보다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이는 여자가 남자보다 옷에 대

었으므로 셔츠 위에 스웨터를 착용한 것이 단정하게 지각되었다. 티셔츠·반바지와 7부바지가 가장 단정하지 못하다고 평가되었다. 즉 수트는 단정하게 지각되었으나 반바지와 7부바지는 단정하지 못한 것으로 지각되었다.

세련성 요인은 6개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여성의 바지수트와 니트가디건이 가장 세련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남성복의 경우는 스웨터가 세련성이 높은 편이었으므로 셔츠 위에 스웨터를 입는 것이 세련되게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남방·티셔츠, 남방·반바지, 스웨트셔츠, 티셔츠·반바지도 세련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바지수트와 니트가디건은 세련된 것으로 보며, 남방, 티셔츠, 반바지는 세련되지 못한 것으로 지각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대학생들이 일상적으로 많이 착용하는 평범한 옷들은 세련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

능력 요인은 7집단으로 분류되었으며, 바지수트가 가장 능력 있게 평가되었다. 남방·티셔츠, 남방·

〈표 2〉 지각자의 성별 및 의복스타일에 따른 의복이미지 평가

변량원		단정성 F	세련성 F	능력 F	활동성 F
주효과	성별(A)	12.70***	153.04***	43.20***	.18
	의복스타일(B)	35.38***	15.72***	18.44***	113.28***
2원상호 작용효과	A×B	2.39**	1.74	2.65**	2.24**
변인	속성	M	M	M	M
성 별	남자	4.80	3.98	4.02	4.36
	여자	4.63	3.21	3.67	4.34
의복 스타일	S1 스웨셔츠	4.74 e	3.11 ef	3.46 fg	5.27 a
	S2 티셔츠·반바지	3.84 g	3.14 ef	3.73 cde	5.33 a
	S3 남방·티셔츠	4.71 e	2.84 f	3.31 g	4.71 b
	S4 남방·반바지	4.63 e	3.08 ef	3.46 fg	5.15 a
	S5 점퍼	4.76 de	3.30 de	3.59 def	5.11 a
	S6 스웨터	5.04 bc	3.74 bc	3.86 cde	4.65 b
	S7 셔츠·스커트	4.09 f	3.24 de	3.57 ef	4.43 c
	S8 원피스	4.81 cde	3.89 b	3.80 cde	3.64 d
	S9 바지수트	5.41 a	4.23 a	4.69 a	2.88 e
	S10 7부바지	4.05 fg	3.45 cd	3.94 c	4.39 c
	S11 스커트수트	5.24 ab	3.90 b	4.37 b	2.86 e
	S12 니트가디건	4.99 cd	3.98 ab	3.80 cde	3.74 d

* $p < .05$ ** $p < .01$ *** $p < .001$, a~g : Duncan's multiple range test

반바지, 스웨셔츠는 가장 능력 없게 평가되었다. 따라서 바지수트가 능력있게 지각된 반면, 셔츠류와 반바지는 능력없게 지각됨을 알 수 있다.

활동성 요인은 5집단으로 분류되었다. 티셔츠·반바지, 스웨셔츠, 남방·반바지, 점퍼가 가장 활동성이 높게 평가된 반면, 스커트수트, 바지수트는 가장 활동성이 낮게 지각되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남자의 캠퍼스웨어로 스웨셔츠는 세련되지 못하고 능력 없게 지각되었으나 활동적으로 평가되었으며, 티셔츠·반바지는 세련성과 단정성이 낮았으나 활동성이 높았다. 남방·티셔츠는 세련되지 못하고 능력 없게 지각되었으며, 남방·반바지는 세련성과 능력은 낮게 지각되었으나 활동성은 높게 평가되었다. 점퍼는 활동성이 높은 것으로, 셔츠 위에 스웨터를 착용하는 것은 비교적 단정하며, 세련되게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여성의 바지수트는 단정하고 세련되며 능력있게 지각되었으나 활동성은 낮게 평가되었다. 7부바지는 단정하지 못한 이미지로 지각되었으며, 스커트수트는 단정성은 높으나 활동성이 낮게 지각되었다. 니트가디건은 세련된 이미지로 지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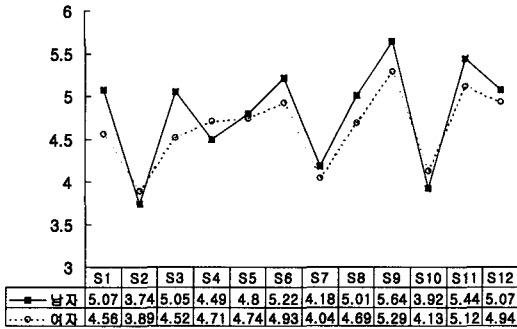
이상의 결과는 수트가 셔츠·바지보다 매력성이 높고 활동성이 낮다는 선행연구⁵⁰⁾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며, Bulter와 Rossel⁵¹⁾의 연구에서 여교사의 수

트가 더 지적 능력이 높게 평가된 것과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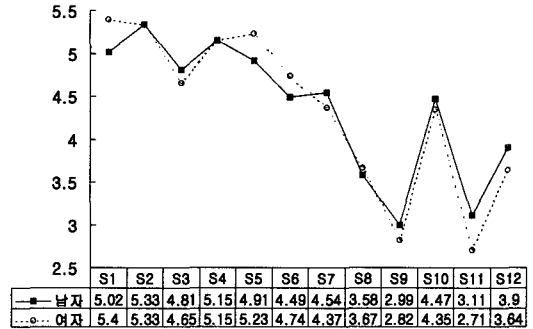
각 요인의 성별과 의복스타일에 따른 상호작용효과 검증에서는 단정성, 능력, 활동성 요인에서 유의한 상호작용효과가 있었으며, 세련성 요인은 유의한 효과가 없었다(표 2).

단정성에 대한 지각자의 성별 및 의복스타일에 따른 상호작용형태는 〈그림 1〉과 같다. 남자가 여자보다 스웨셔츠(S1)와 남방·티셔츠(S3)를 더 단정하게 지각하였으나, 티셔츠·반바지(S2), 남방·반바지(S4) 및 7부바지(S10)는 남자가 여자보다 단정하지 못하다고 지각하였다. 이것은 남자들이 반바지를 단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며, 짧은 바지에 대하여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더 천박하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유경숙⁵²⁾의 견해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능력 평가에 대한 지각자의 성별 및 의복스타일에 따른 상호작용형태는 〈그림 2〉와 같다. 남자가 여자보다 티셔츠·반바지(S2), 남방·티셔츠(S3), 셔츠·스커트(S7) 및 7부바지(S10)를 더 능력있게 평가하였으며, 스웨셔츠(S1)에 대해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더 능력없게 지각하였다. 즉, 전체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캠퍼스웨어 의복스타일을 더 능력있게 지각하였다. 이는 남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방희



〈그림 1〉 단정성 평가에 대한 지각자의 성별 및 의복스타일의 차이



〈그림 3〉 활동성 평가에 대한 지각자의 성별 및 의복스타일의 차이

선, 고애란⁵³⁾의 연구에서 남학생들은 평범한 스타일을 학업우수성이 높다고 평가한 결과와 유사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활동성 평가에 대한 지각자의 성별 및 의복스타일에 따른 상호작용형태는 〈그림 3〉과 같다. 남자가 여자보다 스커트수트(S11)의 활동성을 높게 평가한 반면, 스웨셔츠(S1), 점퍼(S5)와 스웨터(S6)는 남자가 여자보다 활동성을 낮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극물로 제시된 스웨셔츠, 점퍼, 스웨터가 다른 스타일에 비해 착용한 의복량이 많아서 실제 착용하는 남학생들에게 활동적이지 않다고 지각된 것으로 해석된다.

전체적으로, 남자는 여자보다 스웨셔츠를 단정하지만 능력과 활동성이 낮다고 평가하였으며, 티셔츠·반바지와 7부바지는 능력이 있지만 단정하지 않다고 지각하였다. 남방·티셔츠에 대해서는 단정하고 능력있다고 평가하였다. 이상에서 성별에 따른 의복스타일 이미지 지각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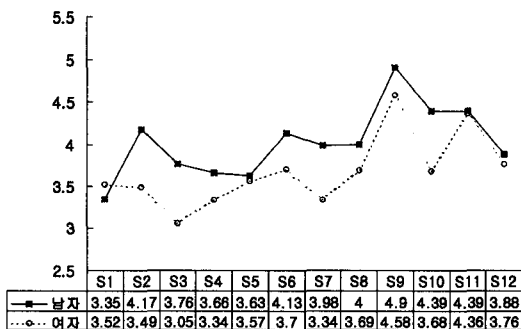
각 의복스타일의 이미지를 2차원에서 파악하기 위해 4개 요인의 적률상관관계를 분석한 후 부정적 상관($r = -.25, p < .01$)이 가장 높은 단정성과 활동성의 2개축에 의한 의복스타일의 위치를 조사하였다. 〈그림 4〉는 단정성을 X축, 활동성을 Y축으로 배치한 결과이다.

〈그림 4〉에서 티셔츠·반바지(S2)가 단정성이 가장 낮고 활동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지각되었으며, 바지수트(S9)와 스커트수트(S11)가 단정성이 가장 높으면서 활동성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7부바지(S10), 셔츠·스커트(S7), 남방·반바지(S4), 스웨셔츠(S1), 점퍼(S5)는 단정성보다 활동성이 높게 평가되었다. 원피스(S8), 니트가디건(S12)은 단정성이 활동성보다 높은 위치에 속하여 단정하게 지각되었다. 남방·티셔츠(S3)와 스웨터(S6)는 비교적 단정성이 높으면서 활동성도 높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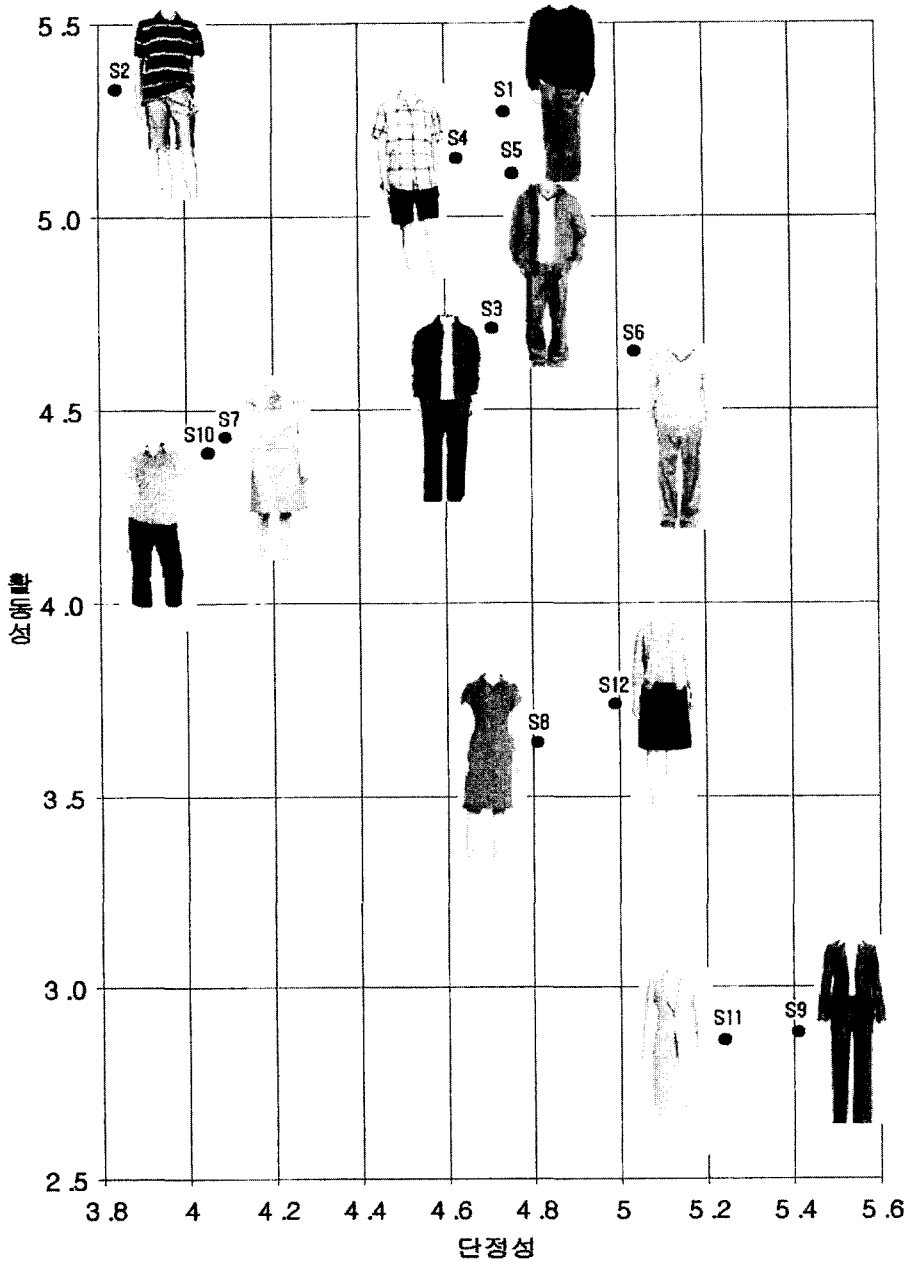
3. 의복스타일에 대한 선호도의 차이

대학생들의 캠퍼스웨어 선호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내가 좋아하는' 문항을 종속변인으로, 12개의 자극물을 독립변인으로 사용하여 일원변량분석과 Duncan의 다중범위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서 선호도는 총 4개의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니트가디건(S12)이 선호도가 가장 높았고, 원피스(S8), 점퍼(S5), 바지수트(S9)도 비교적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티셔츠·반바지(S2)는 선호도가 가장 낮았고, 남방·티셔츠(S3), 스커트수트(S11), 셔츠·스커트(S7), 7부바지(S10), 남방·반바지(S4)도 선호도가 낮은 편이었다. 즉, 대학생들은 니트가디건, 원피스, 점퍼, 바지수트를 선호하며, 티셔츠·반바지는 선호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 능력 평가에 대한 지각자의 성별 및 의복스타일의 차이



〈그림 4〉 스타일별 캠퍼스웨어의 단정성 및 활동성의 위치

이것은 김예숙 등⁵⁴⁾의 연구에서 남녀 대학생 모두 당시 유행하던 7부바지의 선호가 낮았다는 결과를 지지한다. 그러나 남자 대학생들은 외출 시 남방셔츠·바지를 착용한다는 정용희, 김창현⁵⁵⁾의 연구와는 차이가 있었다. 이것은 대학생들이 활동성이

높은 남방셔츠를 외출 시 자주 착용하면서도 실제로 선호하는 스타일로는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풀이된다. 따라서 선호도와 착용도의 차이를 규명하는 것이 필요시 된다.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니트가디건(S12)의

성별에 따른 문항별 이미지 평가의 차이를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그림 5>와 같다. <그림 5>에서 니트가디건은 매력있는-매력없는, 세련된-촌스러운, 눈에 띄는-눈에 띄지 않는, 개성적인-평범한, 대담한-무난한의 항목에서 성별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즉, 남자는 여자보다 니트가디건을 더 매력있고 세련되며 눈에 띄고 개성적이고 대담하다고 지각함으로써 여성의 니트가디건 스타일에 대한 호의도가 높았다. 따라서 남자는 여자의 니트가디건 차림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인 태도를 지님을 이해할 수 있었다.

한 이미지가 높을수록, 적극적인 이미지가 낮을수록 선호도가 높았다. 따라서 여자는 적극적인 이미지가 선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남녀 모두 활동적, 매력적, 단정한, 세련된 이미지가 선호도에 영향을 주었으나, 남자는 무난한 이미지를 선호한 반면, 여자는 눈에 띄면서도 자연스러운 이미지의 의복스타일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남자의 경우, 자신의 의복이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면 어색하고 불편해 하지만 여자는 자신의 의복이 다른 사람과 같으면 불쾌하게 느낀다는 이론⁵⁶⁾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표 3> 의복스타일에 대한 선호도의 차이

자극물	S2	S3	S11	S7	S10	S4	S1	S6	S9	S5	S8	S12
선호도F	3.58	3.70	3.74	3.88	3.92	3.99	4.13	4.17	4.28	4.32	4.36	4.66

* $p < .05$, ** $p < .01$, *** $p < .001$, a~d : Duncan's multiple range test

4. 의복스타일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이미지 특성

캠퍼스웨어 선호도에 영향을 주는 이미지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내가 좋아하는' 문항을 종속변인으로, 각 이미지 평가 문항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stepwise방법에 의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남자의 의복스타일 선호도에는 활동적인 이미지가 가장 큰 영향을 주었고, 다음으로 매력있는, 단정한, 세련된, 대담한(-) 이미지가 영향을 주었다. 5개 변인이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은 42.3%였다. 즉 남자는 활동적이고 매력있으며 단정하고 세련된 이미지가 높을수록, 또 대담한 이미지가 낮을수록 그 의복의 선호도가 높았다. 남자에게는 대담한 이미지가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므로 남자는 대담하지 않은, 무난한 이미지의 의복스타일을 선호한다고 할 수 있다. 여자의 의복스타일 선호도에는 활동적인 이미지가 가장 큰 영향을 주었고, 다음으로 매력있는, 세련된, 자연스러운, 여성적인, 눈에 띄는, 단정한, 적극적인(-) 이미지가 영향을 주었다. 8개 변인이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43.4%였다. 즉 여자는 활동적이고 매력있으며 세련되고 자연스러우며 여성적이고 눈에 띄고, 단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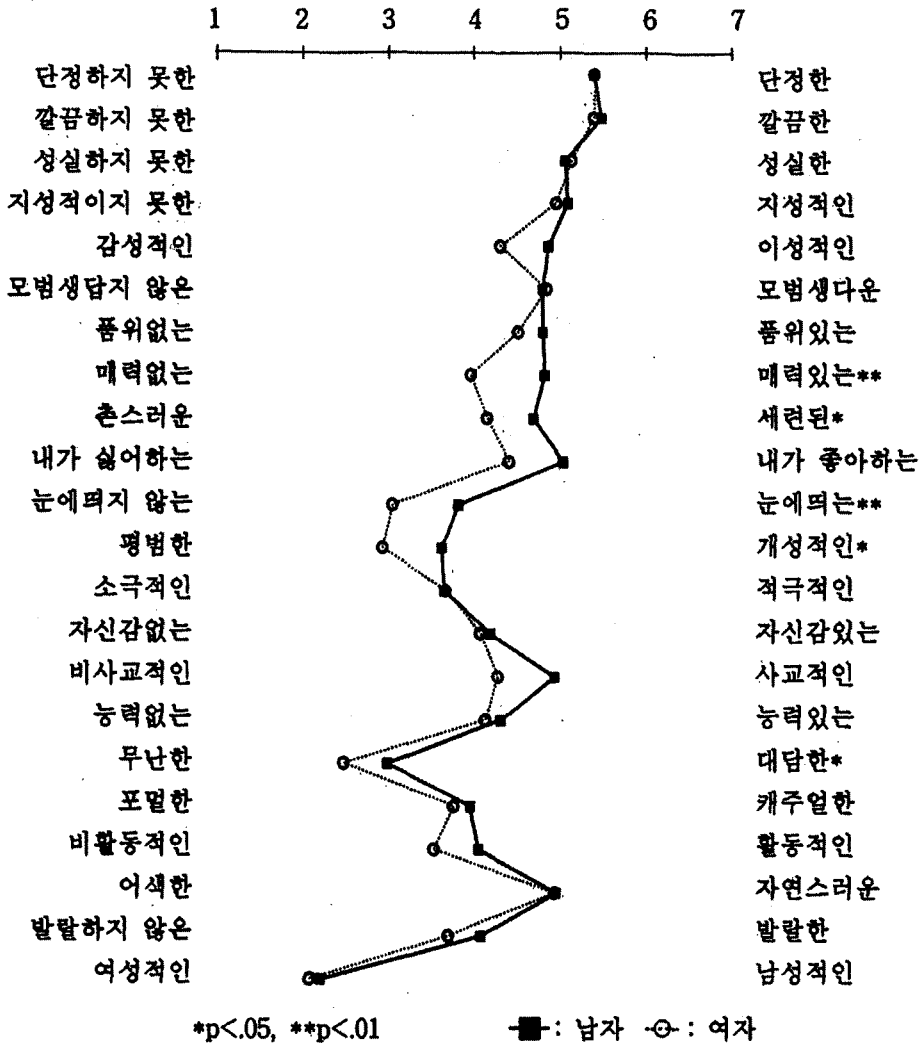
V. 결론

본 연구는 남녀 캠퍼스웨어에 대하여 각각의 성별과 의복스타일에 따른 이미지 평가의 차이를 알아보고, 캠퍼스웨어의 선호도와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이미지 특성을 조사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캠퍼스웨어로 12개의 의복스타일을 자극물로 제시하였으며, 피험자는 서울지역 남녀 대학생 총 340명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요인분석 결과 캠퍼스웨어의 이미지 지각의 차원은 단정성, 세련성, 능력, 활동성의 4가지로 도출되었다.

둘째, 성별에 따라 단정성, 세련성, 능력 요인의 지각은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으나, 활동성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같은 자극물에 대하여 남자가 여자보다 더 단정하고 세련되며 능력있다고 평가하였다. 의복스타일에 따라 단정성, 세련성, 능력, 활동성의 모든 이미지 평가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스웨트셔츠는 세련성이 낮고 능력있게 지각되나 활동적으로 평가되었으며, 티셔츠·반바지는 세련성과 단정성이 낮았으나 활동성이 높았다. 남방·티셔츠는 세련성과 능력이 낮게 지각되었으며, 남방·반바지는 세련성과 능력은 낮게 지각되었으나 활동성이 높게



〈그림 5〉 성별에 따른 니트가디건의 이미지 문항 평가

〈표 4〉 캠퍼스웨어 선호에 영향을 주는 이미지의 다중회귀분석

문항	남자			여자		
	beta	t	R ²	beta	t	R ²
매력있는 - 매력없는	.33	6.29***	R ² = .423 F = 53.22**	.26	5.65***	R ² = .434 F = 54.59**
활동적인 - 비활동적인	.31	7.62***		.26	6.70***	
단정한 - 단정하지 못한	.22	5.08***		.09	2.57*	
세련된 - 촌스러운	.21	3.87***		.21	4.36***	
대담한 - 무난한	-.11	-2.61*		-	-	
여성적인 - 남성적인	-	-		.10	2.71**	
자연스러운 - 어색한	-	-		.13	3.22**	
눈에 띄는 - 눈에 띄지 않는	-	-		.11	2.64**	
적극적인 - 소극적인	-	-		-.08	-2.39*	

*p<.05, **p<.01, ***p<.001

평가되었다. 점퍼는 활동적으로, 셔츠 위에 스웨터를 착용하는 것은 비교적 단정하며, 세련되게 보였다. 바지수트는 단정하고 세련되며 능력있게 지각되었으나 활동성은 낮게 평가되었다. 7부바지는 단정하지 못한 이미지로 지각되었으며, 스커트수트는 단정성이 높고 활동성이 낮게 지각되었다. 니트가디건은 세련된 이미지로 지각되었다.

셋째, 단정성, 능력, 활동성 요인은 성별과 의복스타일에 따른 유의한 상호작용효과가 있었다. 단정성 요인의 평가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스웨트셔츠와 남방·티셔츠를 더 단정하게 지각하였으나, 티셔츠·반바지, 남방·반바지 및 7부바지는 남자가 여자보다 단정하지 못하다고 지각하였다. 능력 요인의 평가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티셔츠·반바지, 남방·티셔츠, 셔츠·스커트 및 7부바지를 더 능력있게 지각하였으며, 스웨트셔츠는 남자가 여자보다 더 능력없게 평가하였다. 활동성 요인의 평가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스커트수트의 활동성을 높게 평가한 반면, 스웨트셔츠, 점퍼와 스웨터는 남자가 여자보다 활동성을 낮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캠퍼스웨어의 선호도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대학생들은 니트가디건, 원피스, 점퍼, 바지수트를 선호하며, 티셔츠·반바지는 비교적 선호도가 낮았다. 선호도가 가장 높은 니트가디건에 대하여 성별에 따른 이미지 문항 평가를 조사한 결과, 남자는 여자보다 니트가디건을 더 매력적이고 세련되며 개성적이라고 지각하였다.

다섯째, 캠퍼스웨어의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이미지 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남녀 모두 활동적, 매력적, 단정한, 세련된 이미지가 선호도에 영향을 주었다. 또한 남자는 무난한 이미지를 선호한 반면, 여자는 눈에 띄면서도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선호하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캠퍼스웨어는 성별과 의복스타일에 따라 이미지가 다르게 지각되며, 특히 남자는 여자의 니트가디건을 호의적으로 평가하고, 선호도 평가에 영향을 주는 의복이미지 특성도 남녀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캠퍼스웨어의 의복스타일에 따라 이미지가 다르게 지각되었으므로, 대체적으로 활동적인 이미지를 원한다면 스웨트셔츠, 티셔츠, 짧은 바지, 점퍼 등의 캐주얼한 스타일을, 단정한 이미지를 원한다면 남자는 셔츠 위에 스웨터 착용, 여자는 니트가디건 및 정장스타일을 입는 것이 적절하겠다. 본 연구를 통하여 남녀 대학생의 의복이미지 평가에 대한 단서

를 제공하였으며, 대학생으로서 자신이 선호하는 이미지에 맞는 의복스타일을 선택하여 자기 이미지를 관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고 본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조사대상을 서울지역 일부 대학생으로 한정하였으므로 전체 대학생에 일반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고, 둘째, 자극물의 제작에 있어서 의복을 마네킹이 착용한 그림으로 사용하여 실제 사람이 착용하였을 경우의 평가와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셋째, 피험자에게 의복 색의 영향을 배제시키기 위하여 그림을 무채색으로 제시하였지만 상의 및 하의의 명도에 각각 차이가 있어 이미지 평가가 달리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후속연구에서는 의복스타일 이미지 지각에 있어 의복 색, 무늬 등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와 개별적인 의류 품목의 선호도와 착용도의 차이를 조사하는 것이 필요시 된다. 또한 지각대상자에 있어서도 다른 연령층과의 비교, 지역 간의 비교를 포함하며, 개인적 특성에 따른 다양한 차원에서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Hurlock, E. B. (1973). *Adolescent development* (4th ed.). Tokyo: Macgrow-Hill Kogakusha, p. 168.
- 2) 신인수, 임상임, 김혜경, 이진희 (2003). *현대패션의 이해*. 서울: 교학연구사, p. 179.
- 3) 김예숙, 손연이, 오미경, 이예식, 이은영, 이주현, 최정희 (1983). *남녀 대학생의 campus wear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가정대학, 부학, 16, p. 24.
- 4) 박성은 (1993). *의복이 대인지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대생의 캠퍼스 웨어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21-63.
- 5) 김예숙, 손연이, 오미경, 이예식, 이은영, 이주현, 최정희. *앞의 책*, pp. 24-28.
- 6) 이영재 (2001). *대학생의 패션 코디네이션 사례 연구*. 디자인학연구집, 7(2), pp. 172-188.
- 7) 섬유저널사 (1996. 3). *주목! MEN' WEAR*. 섬유저널, pp. 101-115.
- 8) 김희숙, 최종명 (2001). *대학생의 의생활 및 의복소비태도의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지, 10(3), pp. 275-290.
- 9) 박영실 (1999). *의복이미지 평가에 관한 연구: 생활공간, 의복실루엣, 의복색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11.
- 10) 라사라교육개발원 편 (2002). *패션용어사전 (증보판)*. 서울: 라사라패션정보, p. 221.
- 11) Kefgen, M., & Tochie-Specht, P. (1986). *Individuality in clothing selection and personal appearance*, 4th ed., N.Y: Macmillan Publishing Co, pp. 54-55.
- 12) 김예숙, 손연이, 오미경, 이예식, 이은영, 이주현, 최정

- 회. 앞의 책, p. 28.
- 13) 박성은, 앞의 책, pp. 57-62.
 - 14) 이영재, 앞의 책, p. 187.
 - 15) Lennon, S. J., & Davis, L. L. (1989). Clothing and human behavior from a social cognitive framework Part I: Theoretical Perspective. *Clothing & Textiles Research Journal*, 7(4), pp. 41-48.
 - 16) Sweat, S. J., & Zentner, M. A. (1985). Attribution toward female appearance styles. In M. R. Solomon ed., *The Psychology of Fashion*. Lexington, MA: Heath/Lexington books, pp. 321-336.
 - 17) Bulter, S., & Rossel, K. (1989). Research note: The influence of dress on student' perceptions of teacher characteristics. *Clothing & Textiles Research Journal*, 7(3), pp. 57-59.
 - 18) Bell, E. L. (1991). Adult's perception of male garment styles. *Clothing & Textiles Research Journal*, 10(1), pp. 8-12.
 - 19) 방희선, 고애란 (1999). 청소년의 의복스타일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7(11), pp. 1-17.
 - 20) 류숙희, 김보연 (2002). 라이프스타일이 의복스타일 이미지평가와 선택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6(2), pp. 227-238.
 - 21) 이현화, 박찬부 (1998). 의복단서, 지각자 변인이 여자 한복착용자의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II): 지각자 변인을 중심으로. *복식*, 37, pp. 119-132.
 - 22) Kaiser, S. B. (1990).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p. 66. p. 279.
 - 23) 황진숙, 나영주 (1999). 남자대학생의 신체만족도와 의복이미지 선호도의 관계 연구. *복식*, 49, pp. 65-72.
 - 24) Delong, M. R., Salusso-Deonier, C., & Larntz, K. (1983). Use of perceptions of Female Dress as an Indicator of Role Definition.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1(4), pp. 327-336.
 - 25) 안유인 (1989). 현대 여성 일상복의 성적 이미지와 상황적 이미지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49.
 - 26) 이경희 (1991). 의복디자인의 평가도구 개발을 위한 연구: 실루엣 평가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29(1), pp. 37-49.
 - 27) 이명희 (1993). 한국과 미국남녀 대학생의 의복이미지 선호도와 성역할 정체감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7(3), pp. 367-379.
 - 28) 이미연, 이명희 (2000). 웨딩드레스의 디자인 요소와 지각자 성별에 따른 인상형성 연구(제1보): 실루엣과 네크라인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4(5), pp. 724-735.
 - 29) 류지은 (2000). 여성의 의복스타일이 첫인상 형성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57.
 - 30) 유경숙 (2002). 성에 따른 의복이미지 평가의 차이에 관한 연구. *복식*, 52(3), pp. 90-96.
 - 31) 김예숙, 손연이, 오미경, 이예식, 이은영, 이주현, 최정희. 앞의 책, p. 24.
 - 32) 권수애, 최종명 (2003). 남녀 대학생의 의복소비생활과 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1(4), pp. 111-126.
 - 33) 1492Miles. 자료검색일 2003. 5. 21. 자료출처 <http://www.1492miles.com>
 - 34) Beanpole. 자료검색일 2003. 4. 14. 자료출처 <http://www.beanpole.co.kr>
 - 35) Bestibelli. 자료검색일 2003. 4. 28. 자료출처 <http://www.bestibelli.co.kr>
 - 36) GIA. 자료검색일 2003. 4. 11. 자료출처 <http://www.giasports.co.kr>
 - 37) KEITH. 자료검색일 2003. 5. 21. 자료출처 <http://www.keith.co.kr>
 - 38) Levi's KOREA. 자료검색일 2003. 5. 21. 자료출처 <http://www.levi.co.kr>
 - 39) SJSJ. 자료검색일 2003. 5. 21. 자료출처 <http://www.sj-sj.co.kr>
 - 40) 이주현, 조금호 (1995). 의상디자인요소가 의복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제1보): 의복형태와 색채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9(5), pp. 747-764.
 - 41) 방희선, 고애란. 앞의 책, pp. 1-17.
 - 42) 김윤경, 이경희 (2000). 의복무늬의 시각적 감성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4(6), pp. 861-872.
 - 43) 이명희 (2003). 지각자의 유행관여가 의복색 지각과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7(7), pp. 851-861.
 - 44) 이명희. 앞의 책, pp. 851-861.
 - 45) 이주현, 조금호. 앞의 책, pp. 747-764.
 - 46) 류숙희, 김보연. 앞의 책, pp. 227-238.
 - 47) 방희선, 고애란. 앞의 책, pp. 1-17.
 - 48) 강혜원 (1974). 대학생의 개성과 유행을 중심으로 한 의복행위와 인성특성과의 관계. *연세논총*, 11, pp. 349-375.
 - 49) 유경숙. 앞의 책, p. 97.
 - 50) 이명희 (2002). 상황, 의복유형 및 배색이 여성의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6(3/4), pp. 503-514.
 - 51) Bulter, S., & Rossel, K. 앞의 책, pp. 58-59.
 - 52) 유경숙. 앞의 책, p. 93.
 - 53) 방희선, 고애란. 앞의 책, pp. 1-17.
 - 54) 김예숙, 손연이, 오미경, 이예식, 이은영, 이주현, 최정희. 앞의 책, p. 26.
 - 55) 정용희, 김창현 (2000). 남자대학생의 신체 의식과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8(3), pp. 460-476.
 - 56) 강혜원 (1995). *의상사회심리학*. 서울: 교문사, p. 111.